광주교통공사, 사랑의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는 20일 서구 마륵동 본사에서 지역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을 펼쳤다. 〈사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진행한 이번 헌혈에는 공사 임직원 및 사옥 입주 업체 직원들이 동절기 지역사회 혈액 보유량 감소 위기 극복과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문석환 사장은 "광주, 전남 지역 의료 현장에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금, 임직원들의 정성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동구, 세계합창대회 민속음악 부문 금상

광주 동구는 지난 15~18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세계합창대회 'SING FROM KOBE'(세계합창총연맹 주관)에 광주동구합창단이 참가해 민속음악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SING FROM KOBE'는 고베 대지진의 아픔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시작된 국제합창대회올해 대회에는 전 세계 약 20개국에서 50여 개 합창단, 2000 명의 단원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연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동구합창단은 민속음악 부문에 출전해 '아리랑', '두껍아, 두껍아', '홀로 아리랑' 등을 연주하며 한국의 전통 선율과 정서를 담은 무대를 선보였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광주시, 여권만들기 좋은도시 2위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외교부의 '2025년도 여권사무 대행기관 성과평가'에서 최상위권 점수인 99.95점을 획득, 전국 24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중 2위(외교부장관 표창)를 차지했다. 〈사진〉

이번 평가는 전국 242개 대행기관(광역 14개, 기초 228개)을 대상으로 ▲업무정확도 ▲개인정보 보호 ▲보조금 집행 ▲여권 업무량 ▲교육 참여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광주시는 여권 개인정보 관리실태, 국고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 직원 수 대비 여권 발급량, 여권실무 연수교육 참여도가 높아 4개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2026년 정기총회 개최

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광일)는 20일 전남본부대강당에서 (사)고향주부모임전남도지회 소속 대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또 강순진 회장(목포농협)의 제 12대 고향주부모임 전남도회장 취임식도 열렸다.

농협전남본부 관계자는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잇는 든든한 동반자로 고향주부모임이 활발한 역할을 하는 데 전남농협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박석현 무신회 회장, 무안군승달장학회에 100만원

무신회 박석현 회장이 지난 19일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안군승달장학회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사진〉

무신회는 무안군 관내 1968년생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으로 회원 간 교류를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모색해 오던 중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자신의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뜻을 모아 마련됐다.

무신회는 이번 승달장학금 기탁을 계기로, 앞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무안신안축협 기획실장이자 무신회 회장인 박석현 회장은 기탁식에서 "회원들 대부분이 무안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며 지역의 도움 속에서 성장해 왔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후배 세대에게 작은 응원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광주대 산학협력단 김현호 씨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현호〈사진〉 책임이 청년 취업진로 및 장기근속 지원 공로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현호 책임은 광주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센터(센터장 조유근)에서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청년 구직단념 예방과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초기상담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취업·진로 설계 등을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친밀한 리플리(재)	30 930 MBC 뉴스 55 MBC 뉴스특보	55 SBS 뉴스특보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11	10 시사기획 창(재)	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30 슈퍼탐사대 X(재) 45 쥬라기캅스 4(재)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위시캣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25 헬로키즈 TV생물도감2(재) 55 특집 2시 뉴스 외전	00 보석이네 건강 수다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10 어린이동물티비(재) 40 함께, 우리(재) 45 팔도밥상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캡슐세이버(재)	55 기분 좋은 날(재)	00 최선규의 이제는 지방시대(재) 55 닥터 365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영상앨범 산(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00 씰룩 시즌2 15 강치 아일랜드 30 꿀잼 영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0 애니갤러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00 생방송 투데이 5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황신혜의 같이 삽시다	50 친밀한 리플리	05 첫 번째 남자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은애하는 도적님아(재)	00 판사 이한영(재)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2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라디오스타	50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재)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2	00 KBS 중계석 〈심포니 S.O.N.G 송년음악회〉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KBS 재난방송센터	15 MBC 뉴스 25 35 웰컴 투 스포츠	10 닥터 365 15 도시락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덕후의 전쟁사전 영원한 로마 제국의 힘 황금의 물방울〉
07:00 꼬마마법사 주니토니
07:15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나의 비밀친구 해치
08:00 딩동댕 딩동댕
08:20 수상한 방송국
08:50 메탈카드봇S 강철의 귀환
09:20 탑골스타 개청이
09:4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손주 보러 세계일주 - 할매가 간다!(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샤와 곰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딩동댕
16:30 수상한 방송국(재)
17:00 페파 피그
17:10 도토리 문화센터
17:40 티시태시와 춤추고 노래해요!
17:50 똘비와 하잇희의 직장습격
18:10 EBS 뉴스
18:30 취미는 과학 여행(재)
19:20 고향민국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세계테마기행 〈프로방스 아트 로드 세잔의 길을 따라서, 엑상프로방스〉
21:35 한국기행 〈달콤한 겨울 3부 손으로 피운 꽃〉
21:55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22:45 PD로그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1일(음 12월 3일 乙未)

☎ 010-9790-8237

子 48년생 국면을 확실히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60년생 해묵은 것을 버린다면 새로운 것이 생길 수도 있다. 72년생 아깝더라도 미련을 버리는 것이 능률적인 판국으로 이끈다. 84년생 번거롭더라도 꼭 참여하는 것이 후일을 도모하는데 용이한 길목을 터준다. 96년생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수하라. 08년생 억지로라도 실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1, 92

丑 37년생 부담스럽다면 가급적 조용히 피해 나가자. 49년생 유명무실한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61년생 원칙과 상식을 기반으로 처리해 나간다면 발전이 있으리라. 73년생 관계의 인식에 있어서 유연함이 절실하다. 85년생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알차느냐의 문제이다. 97년생 시각적으로만 평가하려 들지 말자. 행운의 숫자 : 45, 85

寅 38년생 이상적인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하라. 50년생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괴로워 할 수도 있다. 62년생 파격적인 제안이라면 조건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74년생 난해하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보자. 86년생 지난날에 쌓았던 공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리라. 98년생 쉽게 결론 내려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6, 97

卯 39년생 지나치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51년생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영역과 관계하리라. 63년생 처음에는 부담스럽더라도 차차 적응하게 되리라. 75년생 하늘의 도움이 클 것이니 품은 뜻을 펼쳐 볼 수 있는 때이다. 87년생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있느니라. 99년생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수순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20, 53

辰 40년생 뜻밖의 충격을 받고 고민할 수다. 52년생 눈 깜박할 사이에 전개될 수 있다. 64년생 여건의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76년생 제반 사항을 아우르며 매끄럽게 도모한다면 실속이 있을 것이다. 88년생 눈부신 발전이 있을 것이다. 00년생 주변으로부터 크게 주목 받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28, 96

巳 41년생 정황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한다. 53년생 거슬리더라도 충고에 귀기울이는 것이 좋다. 65년생 형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77년생 활력소가 되어 줄 만할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 89년생 바탕이 좋다면 절반의 성공은 보장받은 셈이다. 01년생 인과관계를 따지려 하지 말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조절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30, 52

午 42년생 치열하고 집요하게 임한다면 늦게나마 대성하리라. 54년생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66년생 서로 맞대어서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78년생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절실한 문제가 보인다. 90년생 동반자의 도움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02년생 넉넉하게 마련해두는 것이 알차다. 행운의 숫자 : 25, 73

未 43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55년생 부차적인 면에서 파생되는 이익이 더 알찰 것이다. 67년생 바탕이 튼실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으리라. 79년생 끊임없는 관심과 빈틈없는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능률적이다. 91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간단히 끝나겠다. 03년생 무리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5, 72

申 44년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자. 56년생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68년생 소소한 것은 차치하고 주된 가치에 충실하라. 80년생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니 눈 딱 감고 있어라. 92년생 장기적인 동력원이 되어 줄 것이다. 04년생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7, 89

酉 45년생 노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도다. 57년생 답답하더라도 잠자코 지켜보고 있어야 할 판세이다. 69년생 개척 정신을 발휘한다면 크게 활로를 열게 될 것이다. 81년생 확실하게 뜯어 고치는 것이 백번 나을 것이다. 93년생 가까운 이가 문제점의 해결을 호소하리라. 05년생 세심하게 정리 정돈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10, 64

戌 46년생 강구한다면 경제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58년생 준비해 왔던 것을 실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70년생 주기적인 리듬을 타면서 반복되리라. 82년생 부단한 탐색과 준비가 궁극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케 하리라. 94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06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비추니 도처에 춘풍이로다. 행운의 숫자 : 43, 98

亥 47년생 소를 버렸을 때 대를 취한다. 59년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이다. 71년생 폐단은 가급적 빨리 개선해야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83년생 어떠한 국량이라 해도 핵심적인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95년생 참으로 중대한 일이 벌어질 수다. 07년생 상호 공조가 순탄함을 이끈다. 행운의 숫자 : 42, 87